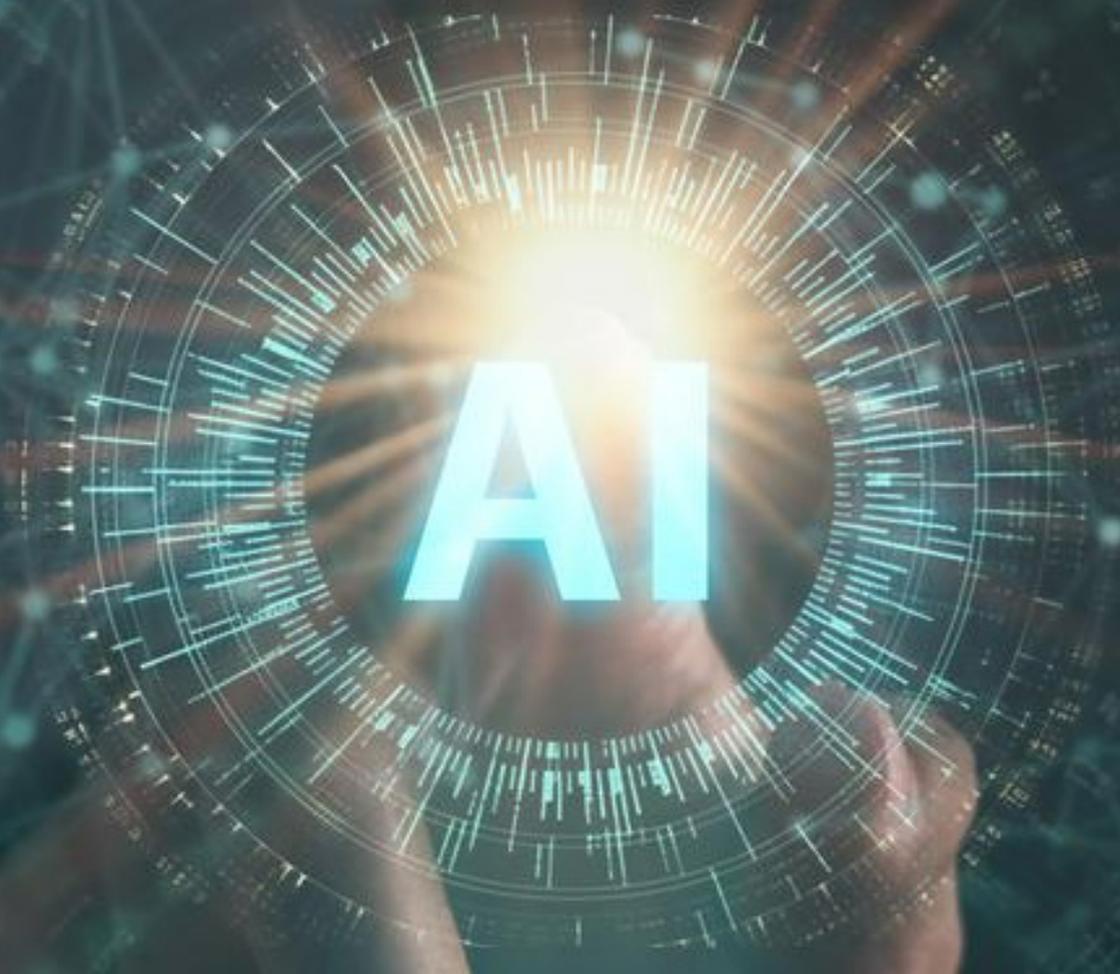


Deloitte Insights

Sep 2024

A hand is shown interacting with a futuristic digital interface. The interface features a large, glowing 'AI' in the center, surrounded by concentric circles and data lines. The background is dark with blue and green light effects, suggesting a high-tech environment.

AI

기업의 생성형AI 사용 현황

2024년 3분기 보고서

Deloitte AI Institute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Deloitte.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들어가며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 생태계에서 기술과 가치의 연관성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과거 주요 기술 혁신에 대한 교훈은 생성형AI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기술의 도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결과와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지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성형AI의 진정한 성공은 기업 전략을 실현하고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직들이 생성형AI 파일럿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학습하면서, 생성형AI에 대한 논의가 막연한 기대감에서 벗어나 비즈니스 성과 실현에 대한 평가로 진화하고 있다. 또한, 조직들이 보다 구체적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대규모 언어 모델(LLM)에서 소규모 언어 모델(SLM)로 진화하는 맞춤형 생성형AI 툴에 대해 고민도 하기 시작했다. 나아가 AI 에이전트의 등장으로 디지털 환경 내 상호작용을 재정의하여 자동화와 개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생성형AI 도입 과정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규제에 대한 고려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마트 생성형AI 규제와 감독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기업과 정부 모두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기술 혁신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과제는 규제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거버넌스를 조율하며 신뢰를 구축하는 동시에 생성형AI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가치 창출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복잡한 논의를 통해, 모든 의사결정의 중심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애플리케이션의 구상 및 개발, 채택 및 사용, 그리고 신뢰와 보안을 위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는 바로 인간, 이해관계자들이다. 이 점에서 직원 역량 강화와 변화에 대한 관리는 생성형AI에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비즈니스 성과와 인간 중심의 변화를 중시하는 생성형AI의 미래는 점점 더 밝아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여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놀라움과 도전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개요:

잠재력에서 성과로의 전환

조직이 생성형AI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생성형AI와 관련된 파일럿 프로젝트는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며 기대를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도전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 중요한 단계에서 최고 경영진과 이사회는 투자 수익을 기대하며, 이니셔티브가 기대만큼, 또는 기대 이상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생성형AI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조직은 과연 생성형AI의 혁신적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인내와 끈기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높은 투자 수익률(ROI)과 가치 중심의 활용 사례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사람, 프로세스, 데이터, 기술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며, 변화 관리와 조직 혁신 또한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이번 분기 설문조사에서는 확장을 위한 두 가지 중요한 영역인 데이터와 거버넌스, 리스크와 규정 준수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조직이 가치를 측정하고 전달하는 방식을 분석했다. 데이터 관련 문제가 실제로 생성형AI 도입과 활용을 저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직이 생성형AI 기반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올바른 관리, 감독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또한, 규제의 불확실성이 성과를 방해하고 있는지, 달성된 이점에 대한 포괄적인 재무적 및 비재무적 조치를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이러한 질문들은 조직이 생성형AI의 잠재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다.

초기 성공을 기반으로 한 확장

- ✔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은 여전히 조직이 추구하는 주요 목표로, 응답자의 42%가 현재까지 달성한 가장 중요한 혜택으로 이 두 가지를 꼽았다.
- ✔ 그러나 나머지 58%는 혁신 촉진, 제품 및 서비스 개선, 고객 관계 강화 등 더 다양한 범위의 중요한 이점을 실현했다고 답했다.
- ✔ 응답자들은 중요한 비즈니스 기능과 프로세스에 생성형AI를 심층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확장과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

- ✔ 설문조사에 참여한 조직 중 3곳 중 2곳은 지금까지 생성형AI의 초기 가치를 확인했기 때문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답했다.
- ✔ 그러나 많은 생성형AI 프로젝트가 여전히 파일럿 또는 개념 증명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응답자의 68%는 조직 내 생성형AI 실험의 30% 이하만이 실제 비즈니스에 접목 및 활용 단계로 전환했다고 답해, 여전히 성공적인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고도화 및 현대화

- ✔ 응답자의 4분의 3은 조직에서 생성형AI 전략 실현을 위해 데이터 생애 주기 관리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고 답했다. 이 중 데이터 보안 강화(54%)와 데이터 품질 개선(48%)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 ✔ 그러나 55%의 조직은 데이터 관련 문제로 인해 특정 생성형AI 활용 사례를 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우려 사항으로는 민감한 데이터 사용,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보안 관리 등이 꼽혔다.

리스크 및 규제에 대한 준비

- ✔ 생성형AI가 리스크 관리와 거버넌스에 가져올 도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조직은 23%에 불과했다.
- ✔ 실제로 조직이 생성형AI 툴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를 도입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요소 중 3가지가 위험, 규제(예: 지난 8월 1일 발효된 EU의 AI 법), 그리고 거버넌스 문제였다.
- ✔ 규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약 절반의 조직이 규제 예측 또는 평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치와 성과 측정을 통한 모멘텀 유지

- ✔ 응답자의 40% 이상은 회사가 생성형AI 이니셔티브의 정확한 효과를 정의하고 측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 ✔ 생성형AI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KPI를 사용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절반도 채 되지 않았으며, 많은 조직이 여전히 표준화된 성공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활용된 모든 통계와 인포그래픽은 2024년 5월부터 6월까지 실시된 딜로이트의 3분기 분기별 설문조사 '기업의 생성형AI 사용 현황'에서 발췌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리더 총 응답자 수(N)는 2,770명이며, 이 보고서와 차트에 표시된 백분율은 반올림으로 인해 총합이 100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기업의 생성형AI 사용 현황: 3분기 설문조사 결과

본 보고서에서 다루는 3분기 설문조사는 2024년 5월부터 6월까지 14개국, 6개 산업에서 2,770명의 디렉터부터 최고 경영진급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에 포함된 산업은 소비자, 에너지, 자원 및 산업, 금융 서비스, 생명 과학 및 의료, 기술, 미디어 및 통신, 정부 및 공공 서비스 부문이다. 설문조사 데이터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대기업 최고 경영진과 AI 및 데이터 사이언스 리더 25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얻은 추가 인사이트로 보강되었다.

본 분기별 보고서는 비즈니스, 기술, 공공 부문의 리더들이 생성형AI의 변화와 도입 속도를 추적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딜로이트 AI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시리즈이다. 본 시리즈는 지난 5년 동안 매년 발간된 딜로이트의 기업 내 AI 현황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deloitte.com/us/state-of-generative-ai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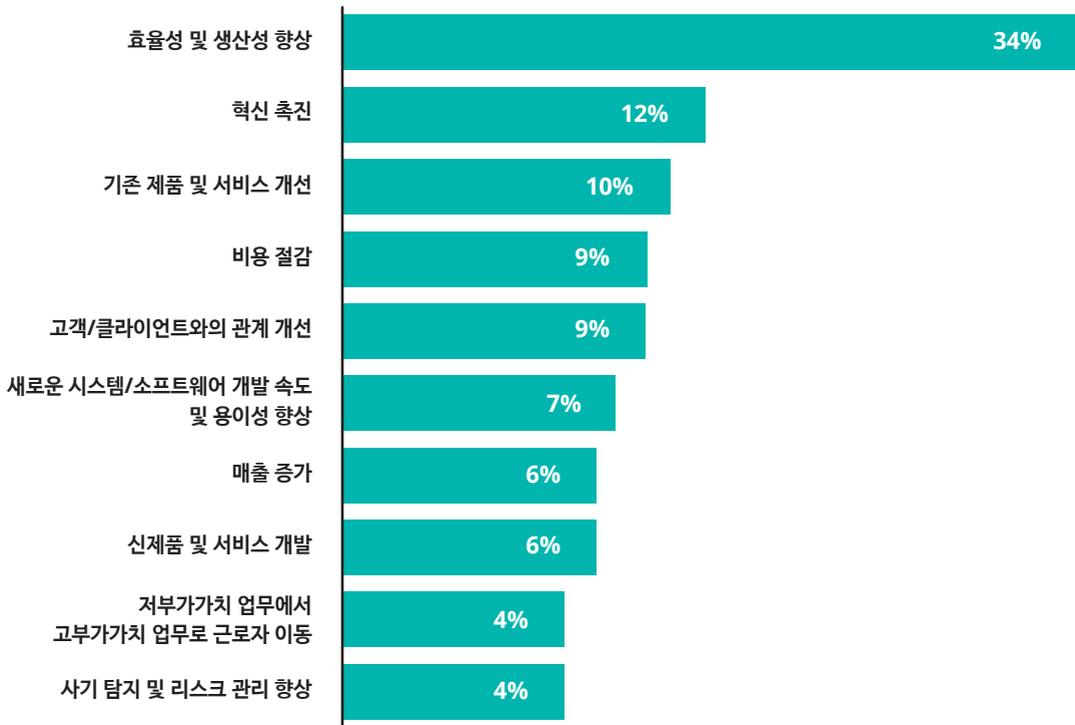
Now: 주요 조사결과

01 초기 성공을 기반으로 한 확장

조직들은 초기 생성형AI 도입을 통해 실제로 가치를 실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공이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 내고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조직의 67%는 현재까지 확인된 강력한 이점 덕분에 생성형AI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답했다. 은행 업계의 한 AI 전략 및 거버넌스 책임자는 이를 직접 목격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생성형AI가 등장하기 전에는 대부분의 고위 경영진이 AI의 가능성을 막연히 이해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직접 AI를 실제 업무에 접목시키며 그 잠재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지난 분기 설문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생성형AI 이니셔티브를 통해 얻고자 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점은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인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응답자의 42%는 이러한 이점을 지금까지 달성한 가장 중요한 성과로 꼽았다(그림 1 참조). 그러나 나머지 58%의 응답자는 효율성, 생산성, 비용 절감 이외의 다른 혜택이 더 크다고 답했다. 여기에는 혁신 촉진(12%), 제품 및 서비스 개선(10%), 고객 관계 강화(9%) 등을 포함했다. 이러한 결과는 생성형AI의 다양한 가치 실현의 원천과 AI 기술의 잠재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생성형AI 이니셔티브를 통해 얻은 주요 이점



Q: 귀사가 지금까지 생성형AI 이니셔티브를 통해 얻은 가장 주요한 이점은 무엇인가?
(2024년 5월/6월) N(전체)=2,770

이러한 분포는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조직들은 여전히 효율성, 생산성, 비용 절감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지만, 아직 그 가치를 완전히 실현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또한, 덜 가시적인 영역에서 예상치 못한 가치를 발견하거나, 이러한 다른 유형의 가치를 우선순위로 삼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생성형AI 도입에는 획일적인 접근 방식이 없으며,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조직은 생성형AI 이니셔티브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원 인터뷰에서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생성형AI가 실제로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활용 사례들이 소개되었다. 이들은 자동화된 의사 결정, 연구 개발 가속화, 혁신 및 시장 차별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여전히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그림 2 참조).

설문조사에 참여한 조직 중 67%가 현재까지 생성형AI에서 상당한 이점을 누리고 있어, 앞으로 생성형AI와 관련된 투자를 늘리겠다고 응답했다.

그림 2. 산업별 실현 가치를 제공하는 생성형AI 활용 사례



생성형AI 이니셔티브에서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될 요소는 무엇일까? 생성형AI의 가치 창출에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기여하겠지만, 설문조사에 참여한 조직의 리더들은 비즈니스 기능과 프로세스에 기술을 깊이 통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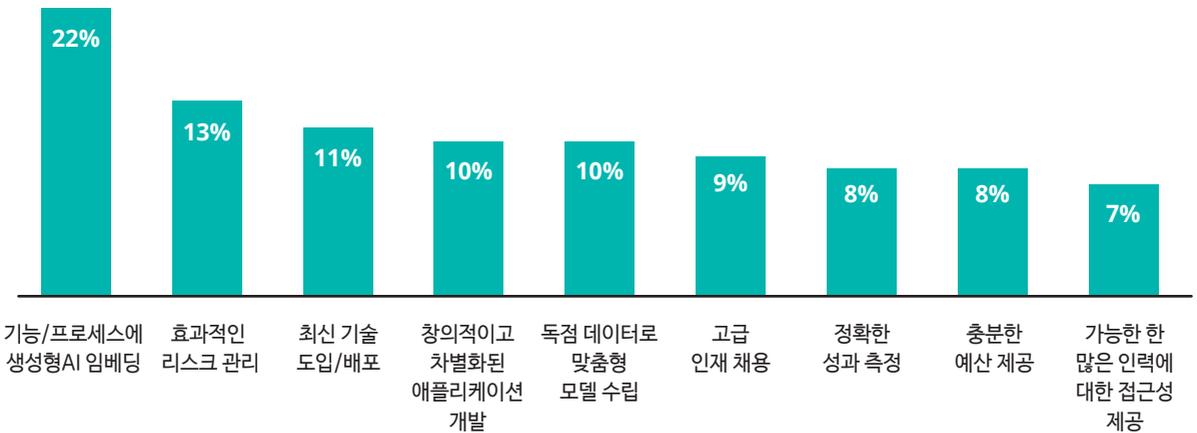
한 은행의 AI 센터 부사장은 “LLM은 AI 기술 생태계에서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를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일부로 만들고 접목시켜야 비로소 실질적인 비즈니스에서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생성형AI 이니셔티브가 비즈니스와 분절되어 있으면 그 가치를 온전히 실현하기 어렵다. 다른 기술들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업무에 통합될 때 그 잠재력이 발휘된다. 이미 많은 조직들이 이 새로운 기술을 기업 비즈니스 성과의 도구로 활용하여 이러한 통합을 실현하고 있다.

많은 조직이 초기 프로젝트에서 상당한 이점을 확인하고 생성형AI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가능한 한 빨리 지속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입증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한 제약회사의 AI, 머신러닝, 분석 및 데이터 글로벌 책임자는 “CEO와 경영진은 생성형AI의 잠재성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활용 사례를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테스트, 실험, 확장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만, 성과가 충분히 빠르게 나타나지 않으면 실망하고 관심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이 잠재적인 위험입니다.”라고 말했다.

최고 경영진과 이사회 구성원들은 여전히 생성형AI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신기술의 열광’이 사라지면서 열정이 식어가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대부분의 고위 경영진(63%)과 이사회(53%)가 생성형AI에 대해 “높은” 또는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답했지만, 2024년 1분기 조사 이후 그 수치는 각각 11%포인트와 8%포인트 하락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조직이 초기 성과를 확장하려면 신속한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

그림 3. 생성형AI 이니셔티브에서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하는 행동 유형



Q: 조직에서 생성형AI 이니셔티브에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행동 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2024년 5월/6월) N(전체)=2,770

02 확장과 성과 창출을 위한 노력

조직에게는 가장 높은 가치 창출 잠재성을 가진 생성형AI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선택하고 확장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목표다. 그러나 많은 생성형AI 노력은 아직 파일럿 또는 개념 증명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응답자의 대다수(68%)가 조직의 생성형AI 실험 중 30% 이하만이 완전히 비즈니스와 접목하여 성과 창출 단계로 전환되었다고 답했다(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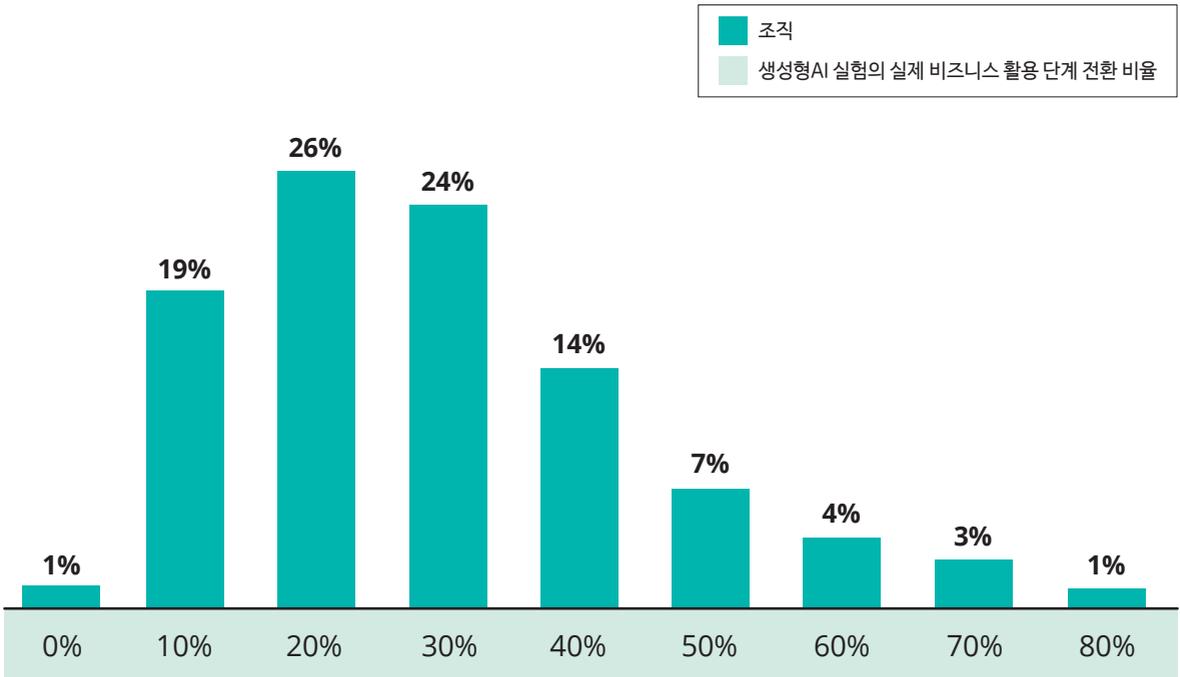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생성형AI의 기능은 빠르게 발전했지만, 이 기술의 적용은 여전히 모든 조직에게 새로운 것이다. 조직은 생성형 AI가 무엇을 잘할 수 있고, 무엇을 잘하지 못하는지 파악하고 있다. 많은 조직이 대규모 생성형AI 도입이 어렵고 다방면에 걸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경험을 통해 배우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많은 프로젝트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은 아직 최소기능 적용 또는 개념 증명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조직에서 생성형AI를 확장하는 데는 몇 가지 기본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조직에게 상당한 도전으로 작용합니다”

자동차 산업 AI 컴플라이언스 부문 선임 전문가

그림 4. 대다수의 조직이 생성형AI 실험의 1/3 미만을 실제 비즈니스에 접목시키고 있었다.



Q: 현재까지 귀사의 조직에서 비즈니스에 활용(프로덕션 단계로 전환)된 생성형AI 실험의 비율은 어느정도 입니까?
(2024년 5월/6월) N(전체)=2,770

성공적인 확장은 조직의 목표, 생성형AI에 대한 접근 방식,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확장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확장은 한 시장에서 여러 시장으로, 한 부서 내 소규모 그룹에서 전체 부서로, 또는 일부 프로세스에서 여러 통합 프로세스로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어떤 생성형AI 기반 툴과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IT 부서 전체에 코드 생성기를 확장하는 것과 재무 부서를 위한 맞춤형 LLM을 확장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기본 사항은 일관되게 적용된다. “무엇보다도 명확한 전략이 필요합니다.”라고 AI 컴플라이언스 수석 전문가는 계속해서 언급했다. “전략이란 별도의 솔루션을 구매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확장을 원한다면, 먼저 플랫폼에 기반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플랫폼 중심 접근 방식에는 여러 활용 사례를 지원하는 기술 플랫폼과 중앙 집중식 전문가 팀을 구축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지난 2분기 보고서에서는 유사한 활용 사례의 배포를 가속화하고 조직이 부족한 생성형AI 전문 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앙 집중식 리소스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보다 폭넓게 보면, 조직은 생성형AI의 기반에 투자하는 동시에 전략, 프로세스, 인력, 데이터 및 기술을 평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그림 5 참조).

많은 기본 요소는 이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노력과 유사해 보일 수 있지만, 생성형AI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강력한 거버넌스, 신뢰 구축을 위한 투명성, 인재 혁신, 그리고 성숙한 데이터 생애 주기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림 5. 파일럿에서 프로덕션으로 생성형AI 이니셔티브를 확장하기 위한 필수 요소



조직들은 이러한 분야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확장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에게 몇 가지 필수 확장 요소에 대한 준비 상태에 대해 물었다(그림 6 참조). 기술 인프라(45%)와 데이터 관리(41%)는 가장 잘 준비되어 있다고 답했으며, 전략(37%), 리스크 및 거버넌스(23%), 인재(20%)가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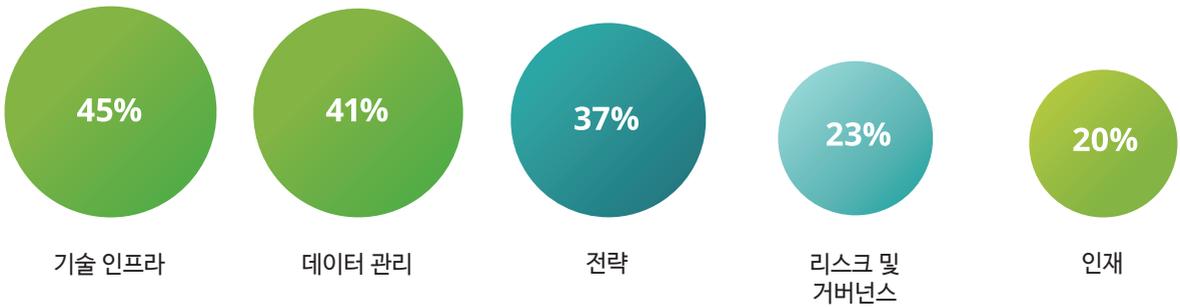
이는 조직이 생성형AI 이니셔티브를 성공적으로 확장하는 데 여전히 몇 가지 근본적인 과제가 있음을 시사한다. 제약업계의 한 생성형 AI 액셀러레이터의 수석 이사이자 책임자는 다음과 같은 시급한 문제를 지적했다: “조직 내 기존 프로세스와 접근 방식의 문화가 현재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LLM의 성능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고, 데이터 품질의 문제는 계속해서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보다 높은 수준의 생성형AI에 대한 이해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혁신을 추진할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많은 조직의 리더들이 초기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했지만, 리스크와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영역 모두에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분기 설문조사에서는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데이터와 거버넌스, 리스크 및 규정 준수라는 두 가지 중요한 영역에 초점을 맞췄다.

그림 6. 조직들은 자신들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할까?

다음 영역에서 생성형AI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조직의 비율



Q: 각 영역별로 생성형AI 툴/애플리케이션을 광범위하게 채택하는 것과 관련하여 귀사의 준비 수준을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2024년 5월/6월) N(전체)=2,770



03 데이터 고도화 및 현대화

설문조사에 참여한 75%의 조직이 생성형AI로 인해 데이터 생애 주기 관리에 대한 기술 투자를 늘렸다고 응답했다.

생성형AI 대응에 있어 설문에 참여한 조직들은 데이터 생애 주기 관리와 관련하여 조직이 상당히 성숙했다고 평가했다.(단, 본 설문에 응답한 조직들은 AI에 정통한 기관들인 점을 염두에 뒤야 한다.) 이는 조직들이 처음부터 좋은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거나, 설문조사 결과처럼 75%의 조직이 생성형AI로 인해 데이터 생애 주기 관리에 대한 기술 투자를 늘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러한 관심 증가는 경영진 인터뷰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한 제조 회사의 최고 기술 책임자는 “과거에는 훨씬 덜 중요했던 데이터 전략이 이제는 생성형AI가 촉발한 일련의 도전적 과제로 인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데이터가 생성형AI의 핵심 기반이 되기 때문에, 생성형AI 자체와 관련된 질문만큼이나 데이터 전략과 관리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영진도 생성형AI 여정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인터뷰에 응한 일부 경영진은 개념 증명에서 확장 단계로 넘어가면서 예상치 못한 데이터 문제가 드러나 조직이 민첩성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는 생성형AI가 요구하는 데이터 아키텍처와 관리의 특정 요건 때문일 수 있다. 특히 조직 내부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예: 퍼블릭 도메인 데이터, 합성 데이터, 라이선스가 있는 타사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 개인정보 보호, 보안, 투명성 등에서 더욱 강력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데이터 소스의 문서화와 라벨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데이터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액세스 프레임워크와 리터러시(Literacy)에도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클라우드 또는 온프레미스(On-premise)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방식 또한 변경될 수 있다. 고급 LLM 사용자는 결국 합성 데이터 작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데이터 관리에 대한 우려 수준 (높음 + 매우 높음)



Q: 다음 질문에 대해 귀사는 생성형AI 구현을 위한 데이터 관리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 우려하고 계신가요?
(2024년 5월/6월) N(전체)=2,7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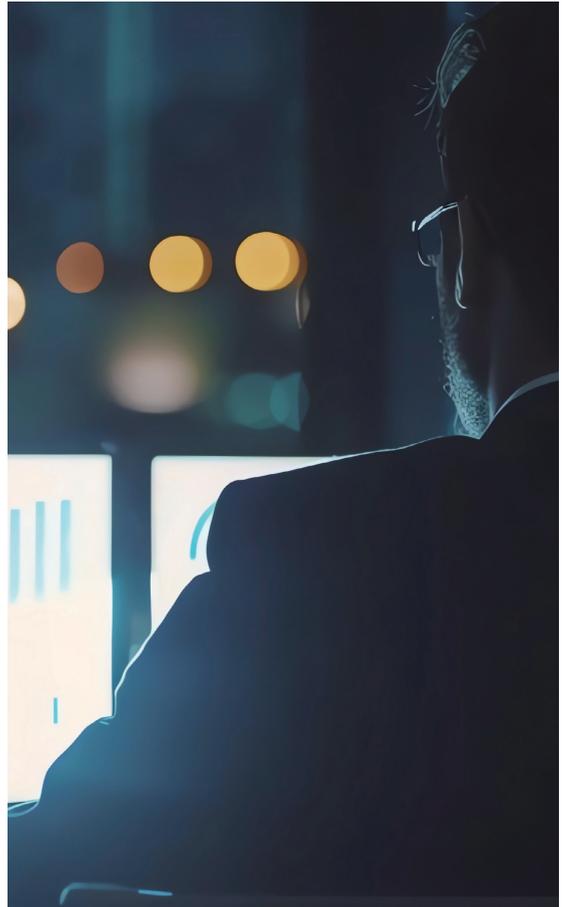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전 데이터 및 인텔리전스 부사장은 다음과 같이 인터뷰하며 이러한 과제 중 하나를 강조했다: “가장 큰 확장 문제는 우리가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과 데이터 관리의 성숙도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인 데이터 카탈로그가 없었고, 기업 전체에 공식적인 메타데이터와 데이터 요소에 대한 레이블이 부재했습니다. 데이터에 라벨을 붙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 맞게 속도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관련 문제는 조직이 원하는 수준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조직의 55%가 데이터 관련 문제 때문에 특정 생성형AI 활용 사례 벤치마킹을 포기하거나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데이터 품질, 보안,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이슈가 생성형AI의 도입과 활용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데이터 품질 문제, 지적 재산권 문제, 적절한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특정 종류의 데이터(예: 공개 도메인, 합성 데이터, 라이선스가 있는 타사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우려가 생성형AI 도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직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민감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58%),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문제(58%), 그리고 데이터 보안 문제(57%)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직은 자체 소유 데이터보다 민감한 데이터(예: 고객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훨씬 더 큰 우려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많은 조직이 데이터 관련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는 것(54%), 데이터 품질 관행을 개선하는 것(48%),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하거나 새로운 데이터 정책을 개발하는 것(45%)이 주요한 대응책으로 꼽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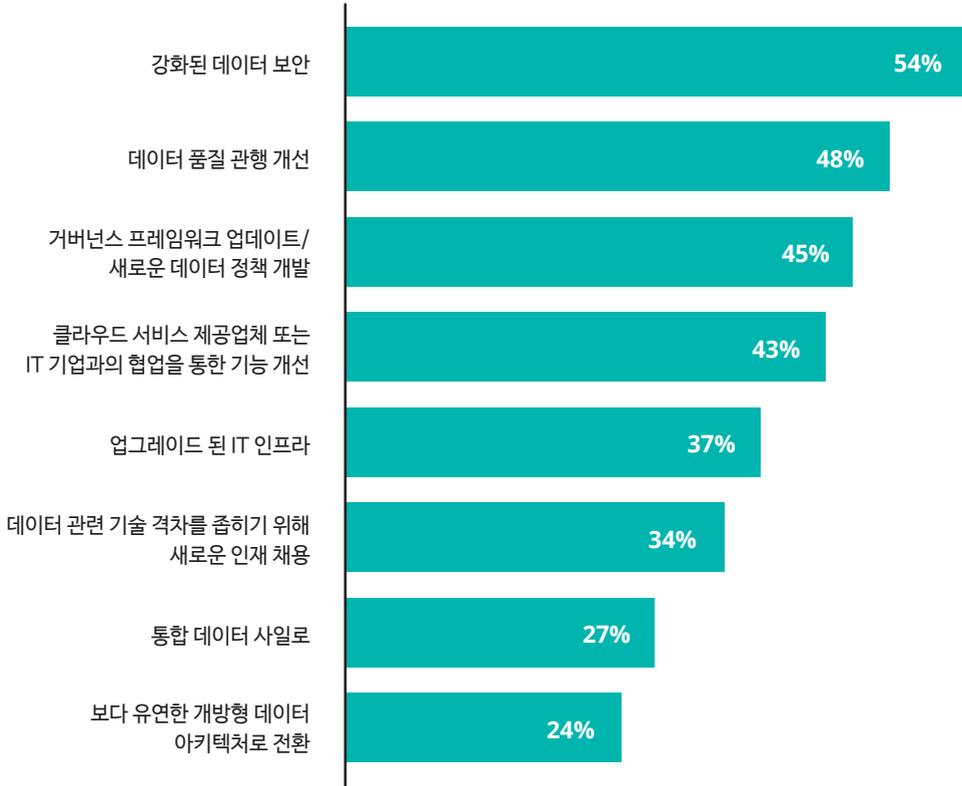
생성형AI 이니셔티브의 가치는 점차적으로 차별화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에서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LLM(대규모 언어 모델)을 미세 조정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구축하거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사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다. 하지만 경영진이 기대하는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려면, 기업은 기존 및 새로운 규제에 대응하면서 독점 데이터의 사용 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은 생성형AI가 조직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그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다.



“데이터의 품질이 핵심입니다. 무엇이 좋은 데이터인지 이해하고, 그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어떻게 보안이 유지되는지, 그리고 사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가 [생성형AI]의 확장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 회사 최고 경영 책임자 겸 최고 전략 책임자

그림 8. 데이터 관련 기능 개선



Q: 귀사는 생성형AI 이니셔티브를 지워하기 위해 데이터 관련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습니까?
(2024년 5월/6월) N(전체)=2,770



04 리스크 완화 및 규제에 대한 대비

설문조사에 따르면, 생성형AI 툴 및 애플리케이션의 성공적인 개발과 도입을 가로막는 주요 장벽 중 상위 4가지 중 3가지는 다음과 같았다:



- 규제 준수에 대한 고민 **36%**
- 리스크 관리의 어려움 **30%**
- 거버넌스 모델의 부재 **29%**



이러한 장벽들은 생성형AI의 구현 문제나 도입 전략의 부재, 활용 사례 식별의 어려움과 같은 기존의 다른 중요한 장벽들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모델 편향, 환각, 새로운 개인정보 보호 문제, 신뢰 등과 같은 복잡한 도전 과제가 AI 도입과 함께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이 생성형AI의 리스크 관리와 거버넌스에 덜 준비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생성형AI와 관련된 리스크 관리와 거버넌스에 대해 매우 잘 준비되어 있다고 평가한 조직은 단 23%에 불과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생성형AI가 소규모 파일럿에서 대규모 배포로 확장되고 조직의 핵심 구조에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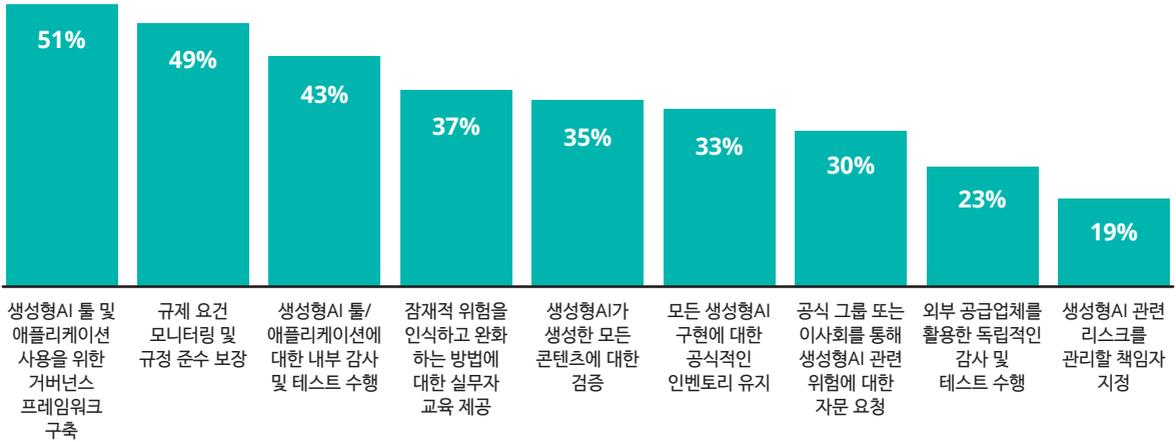
한 금융 서비스 회사의 최고 운영 책임자이자 전략 책임자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생성형AI를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민주화(Democratization)하려면 모든 적절한 제어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AI 이사회를 출범시키고 윤리 프레임워크를 수립했으며, 책임 모델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무엇을 위해 AI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 싶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생성형AI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와 견고한 거버넌스 모델이 필수적이다. 이는 조직이 AI 기술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을 의미한다.

“신뢰를 쌓고 생성형AI 기반의 툴과 애플리케이션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기 위해, 조직들은 새로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인력을 교육하며, 평가를 수행하고, 감독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조직이 현재 취하고 있는 구체적인 조치로는 생성형AI 툴 및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위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 (51%), 규제 요건 모니터링 및 규정 준수(49%), 생성형AI 툴 및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내부 감사/테스트 실시(43%) 등이 있었다 (그림 9 참조). 효과적인 확장을 위해 이러한 조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조직 중 약 절반 미만의 조직만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9.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치



Q: 현재 귀사는 생성형AI 구현과 관련된 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2024년 5월/6월) N(전체)=2,770

1분기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리더 중 78%가 AI에 대한 정부 규제가 더 필요하는 데 동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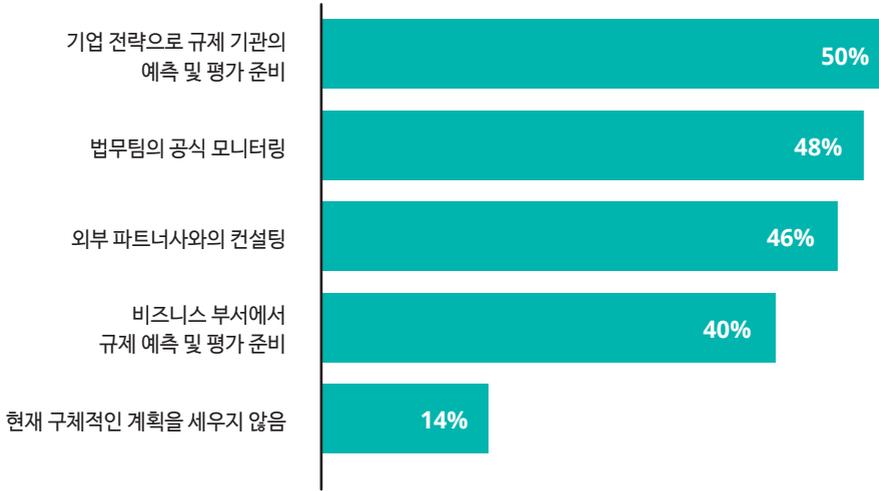
새로운 프로세스와 통제를 도입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조직 내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 적극적인 변화 관리가 필수적이다. 한 전문 서비스 회사의 최고 분석 책임자는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철저한 AI 거버넌스를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서 간 소통이 부족한 사일로(Silo)화된 접근 방식을 취했지만, 이제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절차가 개인정보 보호와 규정 준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새롭고 도전적인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3분기 설문조사에 응답한 기업들은 리스크와 거버넌스 문제 외에도 향후 규제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첫 번째 분기 보고서에서 기업 리더들의 78%가 AI에 대한 정부 규제가 더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했으나, 이론과 현실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규제의 해석과 법 집행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활용 사례를 추구하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냈다.

AI 규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다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AI 정책과 관련하여 유사한 경로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 정부는 보호, 혁신, 경제적 이익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조치는 각 국가와 지역의 맞춤형 규제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일부 조직은 잠재적인 규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조직은 규제 예측 및 평가 준비(50%), 법률 자문 모니터링(48%),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46%)을 주요 대응 전략으로 삼고 있었다(그림 10 참조). 그러나 여전히 일부 조직은 아무런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으며, 14%는 구체적인 계획조차 세우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림 10. 조직이 규제 변화에 대비하는 방법



Q: 귀사는 생성형AI와 관련된 잠재적인 규제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2024년 5월/6월) N(전체)=2,770

경영진 인터뷰를 통한 인사이트 도출

실제 조직에서 규정 준수, 리스크 관리 및 거버넌스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

점점 더 많은 조직이 생성형AI 활용 사례와 투자를 선택할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위험을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많은 조직이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회를 놓치거나 경쟁사에게 시장을 내어줄 위험도 존재한다.

다음은 심층 임원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몇 가지 리스크 관련 조치들이다:

✔ 특정 톨 및 활용 사례 도입 기피

추가적인 규제 조사가 필요할 수 있는 AI 활용 사례를 피하거나, 특정 생성형AI 톨의 사용을 제한한다.

✔ 데이터 노출 제한

지적 재산에 의존하는 조직은 생성형AI 모델에 데이터를 제공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직원들이 공공 대규모 언어 모델(LLM)에 조직 내부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기술 활용

회사의 기술 스택 전반에 걸쳐 맞춤형 솔루션에 투자하여 제어 권한을 강화한다. 또한, 퍼블릭 클라우드로의 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프라이빗 클라우드 내에 안전장치를 갖춘 '월드 가든(World Garden)*'을 구축할 수 있다.

*월드 가든 (World Garden): IT 및 보안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특정한 데이터나 자원을 외부로부터 격리시키고 통제된 환경 내에서만 접근이 가능하게끔 설계된 시스템을 의미

✔ 프레임워크 구축

규정 준수, 리스크 관리, 개인정보 보호 팀과 협력하여 강력한 관리 프레임워크를 개발함으로써 리스크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

✔ 규제 불확실성 관리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규정 준수와 관련된 에코시스템 솔루션을 개발하고, 다양한 규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05 가치와 성과 측정을 통한 모멘텀 유지

많은 조직이 생성형AI 이니셔티브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고 전달할지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분기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1%의 조직이 생성형AI 노력의 정확한 영향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의 수준이 높고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종합적인 방식으로 진행 상황을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생성형AI의 영향력을 측정하고 전달하는 기준이 점점 더 높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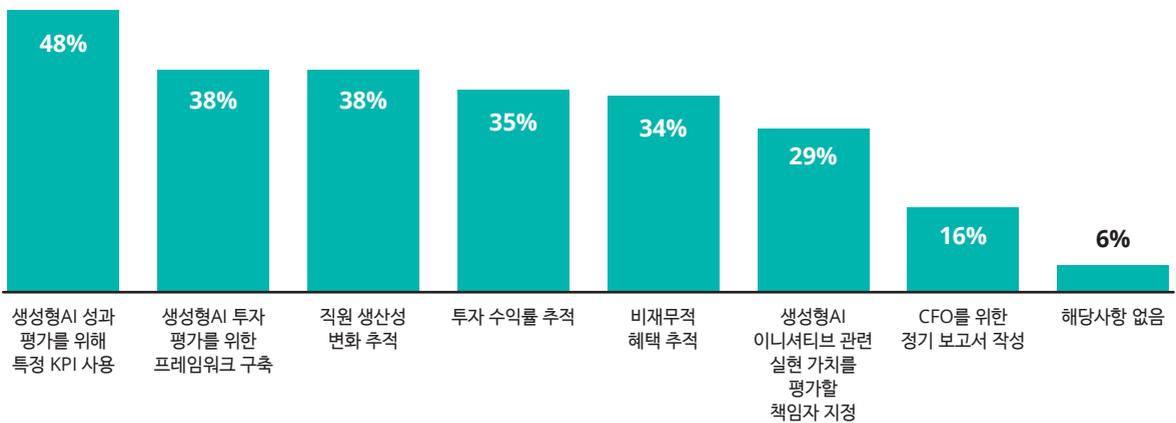
한 테크 기업의 AI 비즈니스 개발 및 전략 담당 이사는 "현재 생성형AI에 대한 평가는 주로 정성적인 방법으로 수행됩니다. 하지만 개념 증명을 넘어 확장 단계에서는 조직 내 전체 포트폴리오 우선순위 선정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보다 정량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입니다."라고 언급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조직의 41%는 생성형AI 노력이 미치는 정확한 영향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초기 생성형AI 투자에 대해 주관적인 접근 방식이 이해될 수 있는 이유는 완전한 규모의 활용 사례가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지원과 자금 확보를 위해서는 생성형AI의 가치를 입증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생성형AI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특정 KPI를 설정하고(48%), 생성형AI 투자를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등(38%) 공식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그림 11 참조).

흥미로운 점은, 과반수(54%)의 조직이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직원 생산성의 변화를 추적하고 있는 비율은 38%에 불과하다는 점이었다.

그림 11. 가치 측정 및 전달을 위해 취한 조치



Q: 귀사는 생성형AI 이니셔티브를 통해 창출된 가치를 측정하고 전달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2024년 5월/6월) N(전체)=2,770

또한, 생성형AI로 창출되는 가치에 대해 CFO를 위한 정기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답한 조직은 16%에 불과했다. 생성형AI가 비즈니스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기업들은 이러한 투자의 가치적이고 측정 가능한 결과를 점점 더 요구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기존의 재무 지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진과의 인터뷰에서 비용이 생성형AI에 대한 의사 결정의 핵심 요소로 부각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앞으로는 생성형AI 이니셔티브에 대한 투자의 가치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재무 및 비재무 측정 지표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의적 혁신 관련 업무에서 인간과 생성형AI 시스템의 성과를 정량화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등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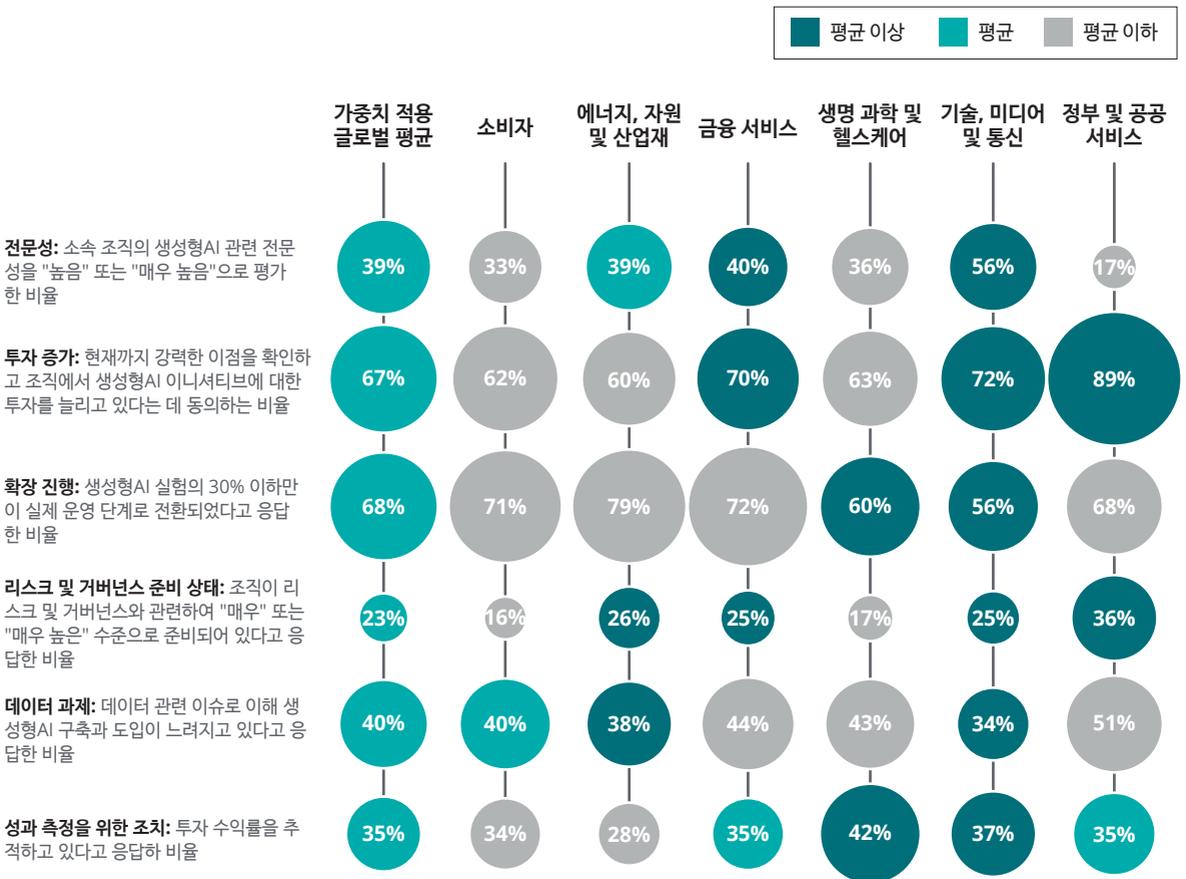
기술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고 전달하는 방법을 파악하는 것은 기대치, 혹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최고 경영진과 이사회로부터 관심과 지원, 투자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아이디어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순간이 많지만, 비용적 제약이 발생할 때 간소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더 강력한 활용 사례를 보유한 팀이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더 높은 ROI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테크 업계의 데이터 사이언스 및 AI 책임자

그림 12. 다양한 산업에서의 생성형AI 접근법



(2024년 5월/6월) N(전체)=2,770

Next: 그렇다면 다음 단계의 전략은?

01 지속 가능한 가치를 지향하며 변화를 향해 나아가기

적절한 곳에 생성형AI를 활용하여 효율성, 생산성, 비용 절감을 실현하고 더 많은 가치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

비용 절감으로 확보된 예산을 적극적으로 재투자하여 혁신을 증대시키고,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며, 고객 관계를 강화하고, 매출 성장을 도모하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한다. 생성형AI가 이러한 다양한 잠재적 이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많은 조직들이 이미 이러한 혜택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혜택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생성형AI가 조직의 다른 기술 및 전략적 이니셔티브와 결합하여 비즈니스의 모든 측면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상상해 봐야 한다. 궁극적으로, 생성형AI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재창조하는 것이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02 기본에 충실하면서 적응성 강화하기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대규모 언어 모델(LLM)과 기밀이 아닌 퍼블릭 데이터를 활용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일반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성형AI의 혁신적인 애플리케이션과 기술 거버넌스, 데이터 생애 주기 관리, 인력 개발, 프로세스 통합 같은 강력한 지원 프로세스가 점점 더 큰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조직의 유연성이 높아지고 변화 관리 역량이 강화되면, 확장 속도를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들은 업계가 LLM을 넘어 맞춤형 도메인 및 산업별 모델, 그리고 소규모 언어 모델(SLM)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활용 사례를 위한 모델을 신속하게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된다.



03 데이터를 장벽이 아닌 촉매제로 활용하기

많은 조직이 생성형AI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LLM 튜닝 및 학습과 같은 활동에는 개인 정보 보호, 기밀성, 지적 재산과 관련된 문제가 없는 고품질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많은 조직이 내부 데이터에 비해 외부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생애 주기 관리가 모든 조직의 생성형AI 우선순위 목록에서 최우선으로 다뤄져야 한다. 데이터 기반(예: 품질, 보안, 개인정보 보호, 추출, 라벨링)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주요 기술 공급업체와 함께 데이터 에코시스템의 구성원(예: B2B 파트너, 데이터 최종 사용자, 타사 데이터 제공업체)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04 책임감 있게 생성형AI 민주화하기

기업의 리더들은 책임감 있는 생성형AI 도입에 있어 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규정 준수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직에서는 이러한 인식과 실제 실행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조직이 이러한 문제에 발목을 잡히지 않으려면 다음 세 가지 핵심 사항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 **이사회와 최고 경영진의 참여:** 이사회와 최고 경영진은 생성형AI에 대한 포괄적인 대화에 정기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 **부서 간 협력:** 여러 부서로 구성된 팀이 리스크를 식별하고 완화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 ✔ **전담 임원 지정:** 생성형AI 관련 리스크를 책임지고 관리할 임원을 지정해야 한다. 현재 많은 조직에서 전담 임원이 부재한 상황이지만, 이 임원은 실험의 규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위험을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민감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생성형AI 애플리케이션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적절한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규제 개발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이 임원은 규제 모니터링과 평가를 자주 수행해야 한다.

05 성과를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측정하기

생성형AI 기술과 활용 사례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어 따라 조직은 원대한 비전, 희망적인 사고(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만 의존하여 투자하는 경향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생성형AI 이니셔티브의 가치를 측정하고 전달하는 보다 엄격한 메커니즘을 구축하면 조직이 효과적인 대규모 배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개념 증명 단계에서는 조직이 정성적인 지표로 만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금까지는 이러한 지표에 기반한 생성형AI의 결과와 성과가 더 많은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초기 단계를 지나 확장 단계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방식으로 가치를 측정하고 전달하기 위해 정량적 지표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관리, 감독 및 비용 압박에 대비해야 한다.

조사 방법론

AI를 선도하는 조직에서 생성형AI를 도입하는 방법에 대한 글로벌 관점을 파악하기 위해, 딜로이트는 2024년 5월과 6월 사이에 2,770명의 리더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본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주로 이사회 및 이사회 구성원, 사장, 부사장, 이사급 임원 등 조직의 고위급 리더들로 구성되어 있다. 표본은 IT 부서와 현업 부서 리더로 균등하게 나뉘어 진행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가는 총 14개국으로, 각 국별 응답자 수는 다음과 같다: 호주(100명), 브라질(115명), 캐나다(175명), 프랑스(130명), 독일(150명), 인도(200명), 이탈리아(75명), 일본(100명), 멕시코(100명), 네덜란드(50명), 싱가포르(75명), 스페인(100명), 영국(200명), 미국(1,200명).

설문조사에 참여한 모든 조직은 매일 하나 이상의 AI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생성형AI를 탐색하기 위한 파일럿을 운영하거나, 매일 하나 이상의 생성형AI를 실제로 구현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조직의 AI 및 데이터 사이언스 전략, 투자, 구현 방식, 가치 측정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사 결정을 내리는 팀의 일원, 최종 의사 결정권자, 또는 AI 기술 구현을 관리 또는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통계와 인포그래픽은 2024년 5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딜로이트의 3분기 설문조사 '기업의 생성형AI 사용 현황'에서 발췌한 것이며, 설문조사에 참여한 총 응답자 수는 2,770명이다.

딜로이트 산업 전문가

TMT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 데이터 분석 및 AI 서비스

딜로이트는 국내 대표 기업들에게 테크놀로지, 데이터 분석 및 AI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 혁신을 함께 해왔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구성원으로 이뤄진 딜로이트 전문가들은 다년간의 기업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이 혁신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TMT (Technology, Media and Telecommunication)



최호계 파트너

첨단기술·미디어·통신산업 전문팀 리더 |
감사 부문

☎ 02 6676 3227

@ hogchoi@deloitte.com

데이터 분석 및 AI 서비스



조명수 파트너

디지털 경영관리 서비스 리더 |
컨설팅 부문

☎ 02 6676 2954

@ mjo@deloitte.com



김진숙 파트너

AI 혁신/거버넌스 리더 |
경영자문 부문

☎ 02 6099 4437

@ jessicakim@deloitte.com



정찬욱 파트너

Core Technology,
Data Analytics | 컨설팅 부문

☎ 02 6676 2732

@ chanjung@deloitte.com



정창모 수석위원

AI 서비스 | 컨설팅 부문

☎ 02 6676 3288

@ changjung@deloitte.com



이성호 상무

AI/Advanced Analytics |
컨설팅 부문

☎ 02 6676 3767

@ sholee@deloitte.com



조민연 파트너

AI Assurance |
회계감사 부문

☎ 02 6676 1990

@ minycho@deloitte.com



이승영 수석위원

Financial asset&Analytics |
회계감사 부문

☎ 02 6676 3478

@ seungyounglee@deloitte.com



앱



카카오톡 채널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Download on the
App StoreGET IT ON
Google Play

Deloitte.

Insights

성장전략부문 대표

손재호 Partner
jaehoson@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리더

정동섭 Partner
dongjeong@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

박경은 Director
kyungepark@deloitte.com

연구원

신인식 Manager
insshin@deloitte.com

디자이너

박근령 Senior Consultant
keunrpark@deloitte.com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